

시·군 교육협력 ‘착착’

서거석 교육감-이학수 정읍시장,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 위해 ‘맞손’ “지역 인재 성장 아낌없이 지원”... 교육지원청 신청사 개청식 개최도 참석

서거석 교육감이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지자체와의 교육협력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학생중심 미래교육’ 실현을 위해 정읍시(시장 이학수)와 손을 맞잡았다.

2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서거석 교육감과 이학수 시장은 이날 개청식 행사가 열린 정읍교육지원청에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도교육청에서 교육협력 취지로 협약을 체결한 시·군은 익산시, 완주군 무주군 등 8곳으로 늘었다. 남원시, 순창군, 고창군 등 남은 6개 시·군과는 내년 상반기에 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다.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정읍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교육협력 담당 부서를 두고, 돌봄 및 학생 글로벌 연수 등 지역교육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건전한 문화와 여가 생활을 위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이 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도교육청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정읍 학생들을 위한 일이란 작은 일이라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정읍교육지원청 개청식날 정읍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정읍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교육지원청은 이날 정읍시 충정로 정읍교육타운에 들어선 신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이학수 시장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 /정은성 기자

결합 방침이다.

양 기관은 4차 산업혁명시대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정읍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 미래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이를 위해 두 기관은 교육협력 담당 부서를 두고, 돌봄 및 학생 글로벌 연수 등 지역교육 협력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주민들의 건전한 문화와 여가 생활을 위해 학교 운동장과 체육관을 개방해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하는 방안을 찾기로 합의했다.

이 시장은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꿈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도교육청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정읍 학생들을 위한 일이란 작은 일이라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정읍교육지원청 개청식날 정읍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정읍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교육지원청은 이날 정읍시 충정로 정읍교육타운에 들어선 신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이학수 시장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 /정은성 기자

관심을 갖고 있는 도교육청에 감사드립니다”면서 “정읍 학생들을 위한 일이란 작은 일이라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서 교육감은 “정읍교육지원청 개청식날 정읍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돼 의미가 남다르다”면서 “정읍 학생들이 자신의 꿈을 키워 지역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읍교육지원청은 이날 정읍시 충정로 정읍교육타운에 들어선 신청사 1층 대회의실에서 서거석 교육감과 이학수 시장은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청사 개청식을 개최했다. /정은성 기자



서거석 교육감과 이학수 정읍시장은 22일 신청사 개청식 행사가 열린 정읍교육지원청에서 교육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기증, 전대 역사를 만든다’ | 전북대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서 내년 2월 22일까지 특별전시

전북대학교역사관(관장 김은희)이 전대역사 특별전 ‘기증, 전대 역사를 만든다’를 기획했다.

이에 따르면 국립대학육성사업 지원으로 꾸며지는 이번 전시는 학교사 자료를 기증자들의 고귀한 뜻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전시는 내년 2월 22일까지 전북대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북대 역사관은 대학 역사의 체계적 관리와 보존을 위해 2001년 교사자료실을 개설, 다양한 학교사 자료들을 수집해왔다. 특히 대학 분부 및 교내 각 기관 연구소, 동문, 지역민을 대상으로 수집사업을 홍보했고, 이에 많은 분들이 한마음을 한뜻으로 학교사 자료를 기증했다.

대학 구성원뿐 아니라 지역민들의 기증도 잇따랐다. 일찍이 작고한 형님의 대학시절 자료를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동생, 부친의 졸업증서를 간직하고 있던 아들, 학창시절 추억이 담긴 학교 엽서를 간직하고 있던 졸업생까지 추상적인 과거를 구체적인 현실로 마주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들이다.

기증된 학교사 자료들은 몇 차례 전시를 통해 소개된 바 있다. 이번 특별



전북대학교역사관이 ‘기증, 전대 역사를 만든다’를 주제로 전대역사 특별전이 전북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연다고 밝혔다.

전에 소개된 전시품들은 대부분 최근 5년 동안 기증된 것으로 대학 발전의 다양한 흔적들을 살펴볼 수 있다. 꿈과 희망으로 가득찬 학창시절을 되돌아볼 수 있는 학생관련 자료와 학문의 결실을 제자들에게 주기 위해 노력했던 교수관련 자료, 발전과 도약의 숨은 원동력이었던 직원들의 손때가 배어있는 박물관 등을 만나볼 수 있다.

김은희 관장은 “지역과 함께 성장하

는 대학의 자료는 단순한 학교사 자료를 넘어 지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의 가치가 있다”며 “학교사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의 역사문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대학과 지역민들이 화합하고 소통하는 전시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대 역사관은 학교사 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보존하고 나아가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공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은성 기자

호원대, ‘호원 교육포럼’ 개최

호원대학교 교육혁신처는 지난 21일 2022 호원 교육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은 미래사회의 대응을 위한 대학교육의 변화 및 과제 방향 설정을 위한 대내외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포럼에는 충북대 교육혁신본부장 이길재 교수의 대학 혁신과 R의 역할이라는 기초강연을 시작으로, 세션에서는 정책연구과제 주요 3가지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세션에서는 비



교과 성과 및 우수사례 3가지를 발표했다.

세션 정책연구 발표에서는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한 인증제 개선, 교수·학습 방법 개선체제의 발전 및 개선방안, 핵심역량진단 기반 교육성과와 활용 방안을 발표해 호원대 교육혁신을 위

한 과제 실현 내용 및 방법을 제시했다.

세션 비교과의 성과 및 우수사례에서는 호원대 재학생의 성공적인 대학생활을 위한 비교과 프로그램인 신입생·재학생 기초학습향상 프로그램, 대학생 마음건강 지원 H-마음방역 프로그램 취업지원 프로그램 우수사례 및 성과를 공유했다.

유선영 교육혁신처장(유아교육과 교수)은 “미래를 책임질 창의혁신 인재를 양성해야 하는 대학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도 대학교육 혁신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강희성 총장은 “호원 교육포럼이 우리 대학의 교육혁신을 위한 방향을 모색하고 추진력을 갖는 귀한 자리가 되고, 나아가 최고의 대학교육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온 교육성과를 펼치는 무대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아름다운교육공동체상’ 수상자 선정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위원회(위원장 두재균)는 22일 ‘제4회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 수상자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수상자는 박현성 익산교 교사, 김예선 임실관촌초 교사, 배철환 전북기계공고 교사, 조민정 군산옥구초 교사, 이대혁 익산삼기초 교사, 홍주완 전주서신초 교사 등 총 6명이다.

아름다운교육공동체상은 전북지역 사회에 귀감이 될 교육자를 발굴해 스승에 대한 존경을 일깨워주고, 교육자들에게는 자부심과 보람을 심어주기 위해 제정됐다. 이에 교육자·학부모·시민활동가 등 30여 명의 시민공동체로 구성된 ‘아름다운 교육공동체상위원회’가 시상한다.

수상자는 학생·교직원·학부모 30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 활동 내용·현장 조사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 후 엄격한 심사가 이뤄졌다.

먼저 박현성 교사는 진심으로 학생을 대하는 스승상으로 학생 한명 한명을 챙기고 보듬어 주는 4H정신(지역노예)의 따뜻한 정을 가졌고, 전국학생 모의국회 토론 대회에 학생들을 참여시켜 3회나 대상을 수상할 정도로 교과 외의 활동에도 열정을 가진 교사다.

김예선 교사는 나라사랑의 마음을 실천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 가운데 직접 작사, 작곡한 ‘아리랑묵도’, ‘오색빛향기’, ‘함흥마을내사랑’을 발표해 학생들의 창의성과 잠재력



박현성 교사 김예선 교사 배철환 교사
조민정 교사 이대혁 교사 홍주완 교사

익산교 박현성·임실 관촌초 김예선
전북기계공고 배철환·군산 옥구초 조민정
삼기초 이대혁·서신초 홍주완 교사 등 총 6명

발굴에 앞장서는 등 ‘사제동행’ 체임을 통한 내실화에 크게 기여했다.

이어 배철환 교사는 학교안전공제 중앙회에서 주관하는 교육활동 사업의 일환인 ‘학교안전매거진’ 지도교사로 활동하며 익산시와 함께 교내 취약 시설을 점검하는 활동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 활동을 토대로 ‘제9회 안전학교 공모전’에서 학교안전 UCC부문 대상과 우수지도교사상을 수상했으며 ‘제9회 안전학교 공모전’에서는 우수상과 지도교사상을 2년 연속 수상하며 전북지역 고등학교 동인들의 우수성을 전국에 알리는데 공헌했다.

조민정 교사는 ‘사랑의 형제자매

교육공동체’ 활동으로 농촌학교라는 학교 여건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다양한 창의적 체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소외받는 학생이 없도록 행복한 창의적 교육 문화형성에 기여했다. 특히 마을교육공동체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실천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하나 되는 교육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앞장섰다.

이대혁 교사는 코로나19 확산예방을 위한 온라인 수업과 블렌디드 수업을 도입해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했으며, 학생들이 미래사회, 민주사회 구성원으로서 법의 의미와 가치, 법을 준수하는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여러 가지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건전한 함양

에도 힘썼다.

특히 학생들의 창의성을 돕고자 영재교육과 발명교육에도 탁월한 업적을 보였으며, SW교육기관의 STEAM프로그램 개발에도 앞장섰다.

마지막으로 홍주완 교사는 학생 학부모와의 소통을 바탕으로 다양한 학생 중심기반 활동을 통해 함께하는 행복한 교육공동체를 형성하는데 공헌했다. 휴일에도 시간을 내 토요일교실과 환경동아리 활동을 전개하는 등의 헌신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편 시상식은 내년 1월 11일 오후 4시 30분 도교육청 2층 대강당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2023학년도 농촌유학생 1차 모집에 59명 신청

도교육청, 내년 22개 학교서 농촌유학 운영... 기간은 1년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3학년도 농촌유학생 1차 모집 결과, 59명이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12월 26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유학 희망 학생과 학부모 면담을 거쳐 11일 유학생 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또 1월 16~20일까지 유학생 추가 모집과 2월 중 주선생 등 전학 절차를 마치고, 3월 1일부터 농촌유학을 시작한다.

앞서 도교육청은 온라인을 통해 전북농촌유학 홍보 설명회를 갖고,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농촌유학생 모집을 시작했다.

특히, 내년에는 농촌유학 협력학교가 22개교로 크게 증가했다. 유학기간도

1년으로 늘리고 협력학교도 중학교까지 확대해 도시지역 중학생들도 전북 농촌유학을 경험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2023년 농촌유학 협력학교는 정읍 영일초·용동초·이평초, 김제 벽향초 완주 동상초·운주초·운주중 진안 조립초 무주 적상초·무봉초 장수 신안초 임실 자사초·대리초·청운초 순창 신안초·인계초·팔덕초·생치초·동산초·적성초, 고창 동호초, 부안 영진초 등이다. 유형별로는 가족체류형 48기, 홈스테이형 3기, 유학센터형 3개다.

농촌유학에 참여한 학생에게는 교육청에서 30만원, 전북도에서 20만원 등 월 50만원의 유학경비를 받는다. /정은성 기자



익산 다e로움 상권 아이디어 공모 수상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학생들이 익산시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익산시가 주최하고 다e로움 르네상스 사업단에서 주관한 ‘2022 익산 다e로움상권 아이디어 경진대회’ 공모전은 지난 14일 진행됐다.

전국 8개 대학의 팀들이 참가해 익산시 영등동 상권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시한 가운데, 전주대학교 두 팀이 1등과 2등을 차지했다.

특히, 전주대 관광경영학과 이리온팀은 특화 거리 리브랜딩을 위해 팝업스토어 입점과 거리 축제로 마케팅 방안 아이디어를 제안하며, 관광객을 유도할 수 있는 흥미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해 최우수상을 받았다.

지도교수인 심우석 교수는 “학생들이 지역 상권에 관광 요소를 활용한 아이디어를 학생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최우수상을 받은 김민주 학생(3년)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상권의 회복과 재도약을 촉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돼 의미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전주대-비전대, 자동차 기업협업센터 협의체 구성

전주대학교 LINC3.0사업단은 지난 21일 친환경·자동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표로 교육 및 취업 프로그램 공유 협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전주대학교 친환경 에너지 기업협업센터(이하 ICC)와 전주비전대학교 친환경 모빌리티 ICC 협의체는 상호협력력을 통한 친환경 자동차 개발에 필요한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구성됐다.

아울러 대학별 공동 실습 및 교과목 운영 및 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하는 방안 등에 논의했다.

한편 협의체는 ICC 간 공동 연구 포럼, 간담회 등 산학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신학년 네트워크 공유를 통한 공유 협업 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성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